

환영사

'18. 9. 6. (목) 09:00~09:10 (10분)
롯데호텔 피콕 스위트룸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윤 석 현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윤석현입니다.

우선, 오늘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는
유럽, 아시아, 북미, 호주의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모여
감독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금융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협의체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지난 20년의 성과는
각 회원국이 서로의 지식과 감독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가
감독당국간 유용한 협의채널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이 지난 20년 정도
통합금융감독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금융의 **겸업화** 진전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권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났듯이,
통합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한국 회의에서는,
핀테크·내부통제·금융소비자보호·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외의 관심이 높은 주제가 논의되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 주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방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II 논의주제별 금융감독원의 감독방향

1 가상통화·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감독

첫 번째로,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감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의 하나가 핀테크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금융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 바이오 인증 기술이 이미 금융권에서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의 개별적 오픈 API를 넘어서 금융권 공동의 오픈 API 구축 노력도 진행되는 등 핀테크 적용분야가 확대되고 핀테크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고령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와 더불어
경제 전반에도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접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적·제도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통화나 ICO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루어지기에,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혁신

두 번째로,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다양한 위험을 스스로 통제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통제는 금융회사 경영의 근간이자
금융회사의 성과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단기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잘못된 유인체계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흡한 책임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잘못된 유인체계와 책임성 결여가
핀테크 등 기술의 진화와 맞물리는 경우
내부통제 실패의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올바른 유인체계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세션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경험이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3 소비자 보호 및 금융포용

세 번째로,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적 금융정책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인식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꾸준히 금융교육, 금융민원 및 분쟁 해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다는
외부의 평가도 여전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의
균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또한 보다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각국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서로 다르고,
각 감독기구의 법적 역할과 권한도 다르겠습니다만,

모든 국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감독방향이 활발하게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4 자금세탁방지

마지막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원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의심거래 보고, 자금세탁 방지관련 범죄수익 몰수,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 등
국제적 감독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를 악용한 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8.1월 FIU와 공동으로
은행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18.1.30.)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출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여,
각국의 정보공유 및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Ⅲ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모쪼록,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각국이 서로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감독방향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